

‘전국구 조폭’ 검거

이태원과 84명... 광주 D·K파 등 전국 돌며 관리

키 175cm 이상에 용모 준수·교육과정 거쳐 선발

‘전국구 조폭’을 표방하며 두 패로 나뉜 조직을 하나로 뭉쳐 활동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전국 각 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원로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이를 토대로 광주 등 일부 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항응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폭력조직을 결성하고서 건물의 철거분쟁에 개입해 돈을 챙긴 조직폭력배 이태원과의 부두목 김모(32)씨 등 1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손모(24)씨 등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22일께 서울시 서초구의 N빌딩 철거 현장에서 보상 문제로 건물주와 분쟁을 벌인 세입자 김모(32)씨의 부탁을 받고 철거작업 중인 근로자 10여명을 둔기로 때려 공사를 중단시키고 건물주를 협박해 퇴거 합의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과과는 서울 한남동 이태원 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두 패로 나뉘어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중순 오모(52·미검)씨를 두목으로 하는 하나의 연합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들은 특히 광주 등 전국의 유명 폭력조직 ‘원로’들의 병수발을 들며 뒷바라지 하는 등 전국 조직으로 입지를 굳혀왔다. 이들은 또 해마다 3~5차례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각 지방의 대표 폭력조직으로부터 항응과 접대 등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에서는 D파와 K파 조직들로부터 항응과 함께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태원과과는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의 운영형태를 모방해 조직원을 뽑을 때 격투 능력은 물론, 키 175cm 이상, 평범한 외모 등 까다로운 신체와 용모 기준을 내걸고 2~4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과해야만 식구로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한남동 일대에서 불법 카지노 등을 운영하며 활동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조직 운영자금에 대해 법원에 몰수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필기자 golee@연남뉴스



광일보훈대상 “장한 삶에 박수” ‘제36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현충일인 지난 6일 광주시민회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장갑수 광주시방보홍청장, 광주일보 유재철 사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 김장수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름철 식중독 비상

광주·전남 학교 급식소서 잇따라 발생

최근 5년, 광주 학교·전남 음식점 많아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학교와 음식점 등에서 크고 작은 식중독 관련 사고가 잇따라 여름철 식품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장소별로는 음식점이 6곳(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3곳(53명), 기타 1곳(17명) 등으로 음식점과 학교 급식시설 등의 식품 위생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식약청의 ‘최근 5년간(2004~2008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식중독 발생 상황을 지역과 원인, 시설별로 분석한 것으로, 광주와 전남은 각각 학교 급식시설과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광주는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시설

에서 12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집중적인 위생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식시설의 경우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학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음식점에서만 5년간 42번이나 식중독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발생빈도는 전남도가 최근 음식 재활용 업소 등 음식점 58곳을 적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어서 당국의 강도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은 또 같은 기간 가정집에서 식중독이 15건이나 발생한 반면, 광주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한편 광주는 5년간 32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79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107건으로 3천12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에서 12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집중적인 위생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식시설의 경우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학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음식점에서만 5년간 42번이나 식중독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발생빈도는 전남도가 최근 음식 재활용 업소 등 음식점 58곳을 적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어서 당국의 강도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은 또 같은 기간 가정집에서 식중독이 15건이나 발생한 반면, 광주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한편 광주는 5년간 32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79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107건으로 3천12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장 시내버스 증차·노인타운 셔틀버스 운행

무등산 옛길 개방과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말까지 무등산장(원효사)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증차된다. 오는 10일 개원하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는 시내버스 3개 노선 연장(본

보 5월 25일자 7면)과 함께 셔틀버스 4대(5개 노선)가 새로 운행된다. 7일 광주시는 “기존 무등산장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1187번 외에 1개 노선(1187-1)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11월30일까지 토·

일요일에 한해 매일 12회씩 운행할 예정이다. 또 노인건강타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셔틀버스는 4대의 버스가 각 구별 ‘봉선동·광주공원 방면’, ‘동암·금호지구 방면’, ‘두암지구·북구청 방면’, ‘문화예술회관 방면’, ‘첨단·수완·월곡 방면’ 등 5개 노선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에 중·고교 통합형 대안학교

6년제 ‘지혜학교’ 내년 3월 개교 추진

광주에 6년제 중·고교 통합형 대안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된다. 7일 광주시교육청과 사단법인 지혜학교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고교 과정 대안학교 ‘지혜학교(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하는 용연학교와 새날학교 등은 있지만 광주에서 대안학교 설립은 처음이다. 특히 이 학교는 철학적 사유 능력 배양, 공동체 지향, 역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 철학 중심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5·18 기념회관에서 창립 대회를 연 뒤 여름학교 운영, 학교 설

명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중·고교 각 20명씩 40명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기초 2년, 본 과정 3년, 진로준비과정 1년 등이며 학력 미인준비과정 등도 마련돼 운영된다. 광산구 폐교를 학교 건물로 확보했으며, 기숙사 개념의 생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성지송학중(영광), 용정중(보성), 한빛고(담양) 등 학력인정 대안교육형 특성화 중·고교 4곳이 운영 중이며, 늦봄 문익환 학교(강진)와 빛고을 학교(화순) 등 학력 불인정 학교도 6곳에 이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5분 달돋이 20시 28분 달질 05시 12분

그늘을 찾아서 오전에 맑다가 오후들어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17/29°C
목포	맑은 뒤 흐림	16/25°C
여수	맑은 뒤 흐림	17/22°C
완도	맑은 뒤 흐림	15/25°C
구례	맑은 뒤 흐림	16/30°C
해남	맑은 뒤 흐림	14/26°C
장흥	맑은 뒤 흐림	14/26°C
고흥	맑은 뒤 흐림	15/25°C
순천	맑은 뒤 흐림	16/27°C
영광	맑은 뒤 흐림	16/27°C
진도	맑은 뒤 흐림	14/25°C
전주	맑은 뒤 흐림	16/28°C
남원	맑은 뒤 흐림	14/29°C
옥산도	맑은 뒤 흐림	15/22°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5m	목포 02:38	07:5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5m	여수 09:00	03:19
남해 동부 앞바다	남동~남	1.0~2.5m	여수 21:50	15:02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9/25	18/23	18/28	17/29	17/29	17/30



16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 새 단장

광주시, 국비 91억 확보 CCTV·급수관 등 교체

광주지역 내 준공 뒤 16년 이상이 지난 영구임대주택들이 새 모습으로 단장된다. 각 단지마다 숙원사업이었던 겨울철 난방을 위한 복도 창호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등이 새로 설치되고, 급수배관이나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도 교체된다. 광주시는 7일 “시가 중점 추진중인 ‘노후 영구임대주택 새단장 사업’에 소요될 예산 130억 원의 70%인 91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개선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49억 원을 들여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통합경비실이나 CCTV 설치 등의 사업단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를 설득, 지난 4월 14억 원에 이어 최근 77억 원의 추가 확보했다. 1천500가구의 하남 시영아파트에는 복도 창호를 설치해 겨울철 난방

비 절약과 안전사고 예방을 꾀하고, 금호시영아파트는 1천m에 달하는 급수배관 교체 및 지하저수조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삼촌 시영아파트는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교체하고 바닥을 탄성 고무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CCTV 10대를 어린이놀이터와 각 층 출입구에 설치키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원전 4호기 발전 재개

지난 3일 송전선로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발전이 재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3일 0시46분께 외부의 주변 압기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스 절연모선)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영광 원자력 4호기의 발전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원전 측은 고장난 송전선로의 교체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4시23분께 발전을 재개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George Winston Solo Piano Concert In Korea

조지 윈스턴 SUMMER

내한공연

2009. 7. 1 WED 8:00PM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770-0541, 1588-0766 | 티켓마루, 조진티켓, 티켓링크

자신의 그리움을 음악으로 풀어낸 조지 윈스턴 그 아름다운 깊은 선율의 여행